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이른 아침 감로의 시간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기억에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영혼의 빛이 끊임없이 켜져 있을 것이다.
- 질문: 아버지의 과업이 아니라 자녀들의 과제인 것은 무엇이나?
- 대답: 자녀들은 바바에게 친척 아무개의 지각에 잠겨 있는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한다. 바바가 이르는데,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며, 자녀인 너희들의 의무다. 너희의 지각에 잠겨 있는 자물쇠가 열렸으니 너희는 남들의 지각에 걸린 자물쇠를 열어서 그들도 역시 천국에 갈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즉, 너희는 해방과 해방된 삶으로 가는 길을 모든 이에게 보여줘야 한다.
- 노래: 깨어라, 오 신부들아, 깨어나라! 새로운 시대가 곧 오리니.

음 산티. 깨어난 너희 자녀들이 여기에 앉아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남들을 깨워야 하니, 무지의 잠에서 그들을 깨워라. 너희는 깨어났지만 등수대로인데, 자꾸자꾸 잊기 때문이다. 너희를 깨운 분이 이르는데, 신부들아, 나를 잊지 마라. 이것은 기억의 기름이다. 누군가 죽으면, 사람들은 등불을 켜두고 기름을 부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자녀들아, 계속해서 나를 기억해라. 이른 새벽 시간은 기억하면서 머물며 등불에 기름을 붓기에 아주 좋다. 이른 아침 시간에 기억하며 머물면 그 기억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너희의 빛은 꺼졌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기억으로 너희의 빛을 점화해서 그것은 켜진 상태로 남아있다. 그 빛은 황금시대와 은시대를 통과하면서 켜진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것을 딥말라, 등불로 켜어진 염주라 한다. 루드라의 염주라 불리든 등불의 염주라 불리든 똑같다. 너희들은 오직 쉬브 바바만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너희는 루드라의 염주의 구슬들, 즉 해방의 나라의 주민들이다. 쉬브 바바의 그 나라는 루드라의 나라라고도 부를 수 있다. 너희가 바바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이해한다. 기억함으로써 너희의 빛은 계속 켜진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너희가 받는 이 지시는 최고로 고귀하다. “슈리마트가 주어졌을 때 참되고 고귀한 종교가 세워졌다”라고 일컬어진다. 너희들의 무리는 거대하다. 영혼인 너희가 더욱 깨어날수록 너희들은 등수대로 더 많은 수의 남들을 깨울 수 있다. 너희의 빛을 점화하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야 한다. 이것에는 어려움이 없다.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것은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영혼들이 계속해서 순수해진다. 영혼들이 전에는 불순했다, 즉, 영혼들의 빛이 꺼져 있었다. 이제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빛이 켜졌고 죄가 계속 없어진다, 즉, 너희는 계속 순수해진다. 영혼들이 지금은 무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 아버지는 모든 의사들 중에서 최고의 의사다. 그는 물리적인 약은 주지 않고, “나만 기억해라”라는 말만 한다. 이 기억에 모든 약품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다. 오직 기억함으로써만 너희는 미래에 여러 생에 걸쳐 건강을 얻는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가들을 가르치고, 일부는 노력해서 그 요가들을 통해 아주 강해진다. 너희들은 지금 마하비르 (위대한 전사)들이 되고 있다. 순수성은 이 용사들의 위대함이다. 이를 통해 수명도 역시 늘어난다. 너희는 계속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힘을 받는다.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순수한 세계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 마지막 생에 순수성을 지켜라. 산야시들도 역시 5악을 버리지만 그들은 밀림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반면, 여기서는 5악을 버리는 것과 더불어 너희들은 가정에 머물러야 한다. 너희들은 이 버림을 통해서 큰 성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반면, 그들은 자기들이 해방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모르고, 그들은 환생해야 한다. 너희들은 죽음의 이 나라로 돌아올 필요 없이, 불멸의 나라로 가야 한다. 이 차이가 있다. 산야시들은 하타 요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계속 죽음의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죽음의 나라에서 불멸의 나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는 이 노력을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가정에 머물면서 요기가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 버림을 통해서 성취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목적도 목표도 없다. 너희에게는 목적과 목표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새 세상으로 갈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해방의 나라에 갈 테지만 그들은 이를 모른다. 너희들은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 완전히 노력해야 한다. 이것에는 축복이나 자비가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은 “제 남편의 지각에서 자물쇠가 열릴 그런 축복을 주소서”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모든 이의 지각에서 자물쇠를 열어주겠느냐? 너희 자녀들의 지각에서는 자물쇠가 열렸지만, 그래도 너희는 여전히 노력해야 한다. 바바는 어느 누구의 자물쇠도 열어주지 않는다. 드라마에 따라서 슈드라들을 브라민으로 변화시킬 자녀들이 와야 된다. 지난 사이클에 자물쇠가 열렸던 자들은 자물쇠가 열릴 것이다. 물론 너희들은 좋은 염원을 갖고 그들에게 조언해줘야 한다. 너희는 그들에게 자비를 갖고서 그들 역시 부유해지고 그들 역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들 역시 천국의 주인이 되도록 그들의 자물쇠가 열리기를 염원한다. 이것은 너희들의 사업이다. 그들의 버림은 유한한 반면 너희의 버림은 무한하다. 너희들은 무한한 왕국을 달라고 하는 반면에 그들은 무한한 해방을 달라고 청한다. 그들의 해방은 너희의 해방된 삶과 같지만, 그들이 영원히 해방될 수는 없고, 모든 이가 다 환생해야 한다. 영혼들이 맨 처음 거기서 내려올 때, 그들의 첫 번째 환생이 좋고 사토프라단하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이해한다. 그 다음에 그들은 라조와 타모의 단계를 거친다. 너희들은 최고로 고귀한 가족에 속한다. 맨 처음에는 본래의 영원한 신인들의 가족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교의 기둥들이 나온다, 그들 모두 나중에는 온다.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지각에 남아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브라민들이고 그들은 슈드라들이다. 가르침을 받고서 타모프라단하던 우리는 사토프라단하게 변하고 있다. 누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냐? 언제나 사토프라단한 분이다. 그는 결코 라조와 타모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므로 그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너희들은 각자 노력해야 한다. 각자의 노력을 통해서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각자가 제 자신의 왕국을 돌본다. 무한한 아버지 한 분만 너희에게 도움을 준다. 그는 쉬운 방법을 보여준다. 이름 자체가 쉬운 라자 요가이며, 신인의 자아주권은 이것을 통해 차지한다. 왕국을 받는 것은 자아인 영혼이다. 영혼은 “나는 지금 보잘것없는 몸 속에 들어 있지만, 나중에는 왕자의 몸을 취할 것이다”라고 한다. 너희 영혼들은 여기에 앉아 있다.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한 분만을 기억해야 한다. 구루들은 만트라를 주지만, 바바가 여기서 주는 만트라는 다른 누구도 주지 못한다.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의 무체인 아버지다, 나는 또 너희의 선생이며 정화자, 구루이기도 하다, 나는 무체다”라는 만트라 하나만 준다. 너희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정화자이고 무체이며 지식의 대양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자 요가를 통해서 그는 우리를 황제들, 황후들로 만든다. 그는 우리들에게 “백 퍼센트 부유하고 장수할 지어다”라는 무한한 유산을 준다. 신인들처럼 긴 수명을 가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 아들을 많이 낳아라! 너희의 가문은 계속된다. 거기에는 악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해한다. 영혼에게는 “나는 지금 가서 아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젊은이가 된 다음 늙어갈 것이다”라는 그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 후에, 영혼은 다른 몸을 취할 것이다. 그곳의 관습과 제도들은 여기와는 다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바바가 매일 이르는데,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인 자녀들아, 내가 몸 없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너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너희는 이마저 잊는다. 너희들은 지금 실제 형태로 여기에 앉아 있다. 너희가 여러 생 동안 낭비적인 이야기들을 들어왔다는 것, 기타와 참으로 많은 책들을 들어왔다는 것도 역시 너희는 이해한다. 지금 이것은 합류시대다. 합류시대의 의미 자체가 낡은 세상의 멸망이 있고 새로운 세상의 수립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서롭고 자애로운 합류시대라고 알려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합류시대를 잇음으로써 너희들은 너희의 왕국도 역시 잇는다. 너희가 전시회를 열

때조차 그것이 어느 누구의 지각에도 자리 잡지 못한다. 그들은, “여기서는 신을 만날 방법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준다”라는 정도는 얘기한다. 그러나 그뿐이어서, 가르치고 있는 분이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아주 소수만이 믿음을 길러서, “네, 가르치고 있는 분이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라 한다. 마지막에 비삼피타마이(위대한 구루)는 신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이해가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전시회에 수천 명이 오지만, 무체인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체인 분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앗차, 저희들이 와서 더 많이 이해하겠습니다”라 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다. 일부는 이래서, 너희가 그들에게 천국의 왕국을 줄 수 있도록 오라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묘목이 심겨지고 있다.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너희가 신봉자들에게, “여러분은 신이 편재한다고 말하면서 어째서 그를 숭배하고 있습니까? 저 형상들은 살아있지 않은 반면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들이니 이것은 여러분이 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라고 설명해주기는 쉬울 것이다. 무한한 아버지는 단 한 분 뿐이고, 오직 그만이 찬양된다는 것을 설명해줘라. 그는 인간 세계 나무의 씨앗, 정화자다. 세계는 불순하고 오직 아버지만이 세계를 정화시킬 수 있으니 그가 합류 때에 올 것이 분명하다. 지금 그가 와서 말하는데,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기타에도 역시 이 말이 들어있지만, 그들이 크리스나의 이름을 집어넣은 탓에 그들은 지각으로 그 한 분에게만 머물 수가 없다. 이 지식이 아주 쉽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해한다. 그러나 장애들이 계속 생긴다. 너희의 친구와 친척들도 역시 장애를 만든다. 나는 너희를 이쪽 방향으로 끌어당기지만 그들은 너희를 그쪽으로 잡아당긴다. 사슬은 매우 튼튼하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한다. 쉬브 바바가 지식의 대양, 행복의 대양으로 기억되니, 그가 뭔가를 해주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는 천국을 세우는 분이다. 나는 단지 “나 하나만 기억해라!”라는 말만 한다. 크리스나는 이 말을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너희는 지치지 말아야 한다. 노력할 수 없는 이들이 많고 그들은 온갖 변명을 한다. 그러나 바바는 너희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주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의 아이들을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되 그저 쉬브 바바만 기억해라. 앗차, 만일 낮에는 시간이 없다면 이른 아침 감로의 시간에 기억하며 머물러라. 그들은 “이른 아침 시간에 라마(신)를 기억하세요”라고 한다. 영혼은 “아침 일찍 너희의 아버지를 기억해라”라고 한다. 바바도 역시 “너희들은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라고 이른다. 너희의 완전한 차트를 적어라. 너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신디어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사람을 건강하고 부유하며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격언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현명해지고 있다. 너희의 지각에 사이클 전체가 들어있다. 너희는 어떤 슬픔도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는 황제들 중의 황제가 되고 있다. 너희는 돈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너희는 건강해지기까지 한다. 너희는 지금 쉬브 바바에게서 이 모든 미덕들을 받는다. 너희들은 반드시 건강하고 부유하며 행복해진다. 홀리와 디파왈리(빛의 축제) 등이 지금 이때에 유래했다는 것과 나중에 기념물이 된다는 것도 역시 너희들은 이해한다. 따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좋다. 계속 너희의 기억을 늘려가라. 너희 자녀들은 “깨어라, 오 신부들아 깨어나라!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노래를 들었다. 너희의 가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바를 소개해라. 그 다음에 그들이 바바에게, “바바, 저는 아무개를 통해서 당신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당신에게만 속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당신에게서 유산을 차지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속했었습니다.”라는 편지를 쓰게 해야 한다. 그런 편지가 오면 그것은 행해진 봉사의 증거다. 그런 편지를 보면 바바가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수업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너희가 전에 했던 것이나 다른 샷상에서의 일상과도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각자에게, “이것은 아주 고귀한 공부입니다. 여러분은 지식의 대양에게서 그렇게 좋은 지식을 받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앓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나마스테.

실천 요지:

1. 기억하는 연습을 늘려라. 이 순례에 지치지 말고 변명하지도 마라. 기억에 대한 완전한 차트를 작성해서 간직해라. 쉬브 바바를 기억하면서 음식을 요리해서 먹어라.
2. 너희의 지각이 무한한 버림을 행하게 해라. 지각에서 이 더러운 세상을 버려라. 너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만트라를 모든 이에게 전해줘라. 너희가 깨어났으니, 너희는 남들을 깨워야 한다.

축복: 행복을 주고 위대함뿐 아니라 겸손까지 채택함으로써 모든 이에게서 존중받아라. 위대함을 나타내는 표시는 겸손이다. 너희가 위대한 만큼 너희는 변함없이 충만해서 꼭 그 정도만큼 겸손하다. 열매가 많이 열렸을수록 나무가 숙이듯이 봉사를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함이다. 늘 겸손한 자들은 모든 이에게서 존중받는다. 교만한 자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모든 이가 그런 사람에게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다. 겸손한 이들은 어디를 가거나 뭘 하든 언제나 행복을 준다. 그들에게서는 모든 이가 행복을 경험한다.

솔로건: 슬픔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보물을 항시 너희 곁에 두어라.

*** 옴 산티 O M S H A N T I ***